축구공 하나로 이룬 한마음

2002 남북 통일축구경기 0-0으로 비겨

≪통~일조국! 짜작작 짝작≫

남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일축구경기가 12년만에 상암월드컵축구장에서 열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였다.

주말인 7일 오후 6시 37분≪2002 남북통일축구경기≫의 개회선언과 함께 박근혜 유로-코리아재단 이사는≪제가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9월에 남북 축구경기를 합의했는데 마침내 오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니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고 인사하고≪또 하나의 커다란 꿈은 통일 조국이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북측 단장 리광근은≪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모든 체육인들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인사하고≪이번 축구경기는 온 민족의 호응과 기대를 갖고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구현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보다 굳건히 하는데서 새로운 단계를 이룩하게 되었다≫며≪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아리랑 가락에 맞춰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된 단일기를 앞세운 선수단이 입장하자 관객들은 통일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남북 선수단 역시 단일기를 왼쪽 가슴에 달고 나왔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남측 선수들의 선공으로 시작된 전반전에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북측 선수들이 예상보다 선전해 양측 모두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기장에는≪남이 이겨도 북이 이겨도 우리는 하나다≫,≪하나되자! 하나되어 세계를 흔들어 놓자≫는 프랭카드들이 걸려있고 월드컵 당시의 붉은 복장과 이번 경기를 위해 통일연대가 준비한 단일기색과 같은 하늘색 티셔츠들이 눈에 띄었다.

경기는 전후반 모두 득점 없이 결국 0-0으로 끝났으며 남북 선수들이 대형 단일기를 들고 운동장을 한바퀴 도는 퍼레이드가 펼쳐져 다시 한번 관중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경기를 지켜본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는≪비긴 것은 하늘의 뜻이다. 비겨서 서로 다 마음이 좋다≫며≪꼬마들까지 열성을 내는 것을 보니 통일이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단체 응원을 해 관심을 모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남명나(아이찌중고 고급3학년) 학생은≪이렇게 남북의 통일 축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동≫이라며≪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김부식(44)씨와 아들 도훈(5) 군과 함께 경기를 구경한 이경춘(35) 씨는≪비겨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남북 선수들이 함께 한 것이니까 좋았다≫며≪전반에는 북측 선수들의 수비가 잘됐고 후반에는 우리 선수들이 잘 뛰었다≫고 관전평을 했다.

이날 경기를 실황중계한 KBS TV 이용수 해설위원은≪북쪽 선수들의 기량이 아주 좋아졌다. 특히 미드필드의 압박과 공수전환 속도는 수준급≫이라며≪우리가 잘하지 못한 경기였다≫고 평하고 오늘 경기에서는 남측의 이영표 선수와 북측의 김영준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열린 상암구장 밖 남문쪽 광장에서는 통일연대 소속 회원과 시민 1천여명이 대형 화면을 설치해 경기를 관람하면서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으며, 자유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곳곳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다 주최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근 남북간에 당국자 회담과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남북통일축구경기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 화해와 단합에 기여했으며 이후 부산아시아 게임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다.

통일뉴스 취재단
통일뉴스 2002/09/08

제7차 북남상급회담 공동보도문

제 7 차 북남상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확고히 리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공동보도문과 그밖에 서로 관심하는 문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북과 남은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북남 철도 및 도로련결문제, 개성공업지구건설문제, 림진강수해방지문제와 그밖의 경제협력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동해선 및 신의주－서울사이 철도 및 도로련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북과 남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자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북과 남은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을 위한 군사적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가지도록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한다.

3.북과 남은 안변청년발전소 임남언제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중순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한다.

4.북과 남은 제 5 차 흩어 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상봉의 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아울러 흩어 진 가족, 친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제 4 차 북남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때 면회소설치운영문제 등을 협의한다.

5.북과 남은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북과 남은 북측의 제14차 부산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백두산성화운반 등 제반 실무적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조선올림픽위원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북과 남은 북남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북과 남은 태권도시범단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시범단이 9월중순에 평양을, 북측시범단이 10월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단체들사이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9.북측 경제고찰단이 10월하순에 남측지역을 방문한다.

10.북과 남은 제 8 차 북남상급회담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주체91(20020년 8월 14일
서 울

통일축구, 경기장 안 이모저모

신명난 치마저고리 응원단

6만여 관람석에서 가장 눈에 띈 응원을 펼친 곳은 단연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교복인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북과 꽹가리를 치며 열띤 응원을 펼친 이들은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 산하의 민족학교 초.중.고 학생 예술단원들.

지난 2일 입국해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분단이래 최초로 총련 계열 학생예술단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어제(6일)는 2차 공연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었다.

구대석 단장(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은≪어제 전주 공연은 눈물바다였다. 반응이 대단했다≫고 소개하고 축구경기에 대해≪남과 북 어느쪽을 응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백혜미(큐슈조고 고급부3학년) 학생은≪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응원도 질서도 자원봉사로

이번 통일축구에 공식 응원에 나선 조직은 코리아팀파이팅, 광개토, 통일연대 등 세 곳.

통일연대는 시청앞 응원 등을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승낙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카드섹션으로≪통일축구 세계최－강≫을 준비했으나≪붉은 악마≫측의 비협조로 제대로≪작품≫이 나오지는 않았다.

대신 단일기를 보급하고 상암구장 남문쪽에서 장외 응원을 펼치는 한편 관람객들에게 단일기를 나눠주고 축구장 안에서도 가장 열렬히 응원에 나섰다.

코리아팀파이팅 정승원 커뮤니티 회장은≪≫이산의 아픔을 화합의 축구로≫라는 플랭카드를 준비해왔고 대~한민국 박자에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다≫고 밝히고≪주최측이 대형 한반도기를 못 펴게 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 북소리에 맞춰 응원을≪리딩≫해 나갔다.

월드컵 자원봉사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다시 통일축구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오제승(25) 학생은≪월드컵 자원봉사는 일생에 있어 멋진 추억이였다≫며 이번 통일축구에 대해≪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해 같이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뜻깊은 플랭카드

이날 통일축구 경기가 치러진 상암구장은 청명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가운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내용을 담은 프랑카드들이 곳곳에 걸려 통일 분위기를 고취했다.

응원단 코리아팀파이팅에서는≪이산의 아픔을 화합의 축구로≫,≪하나되자! 하나되어 세계를 흔들어 놓자≫라는 플랭카드를 내걸었고 통일연대는≪통일축구 내년에는 평양에≫,≪남이 이겨도 북이 이겨도 우리는 하나≫,≪2004올림픽은 통일축구 단일팀으로≫라는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이 외에도≪2006 독일월드컵 원정응원단 붉은 도깨비≫라는 명의로≪승부는 일없습네다. 만남이 중요하지요≫라는 플랭카드가 눈에 띄었다.

남측도 북측도 모두 이겨라

관객들은 남쪽 선수가 잘할 때나 북쪽 선수가 잘할 때 모두 큰 함성과 함께 단일기를 흔들며 응원했다.

좋아하는 남쪽 선수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는 여학생들도 북측 선수들이 잘하는 장면이 나오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가족단위로 응원을 나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선수들이 선물한 축구공을 얻은 행운을 누린 심승민(숭실중 2학년) 학생도 온 가족이 함께 구경왔다며≪남북한끼리 화합하는 자리여서 좋았고 북측도 공격이 빠르고 패스도 빨랐다≫고 북측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통일뉴스 취재단
통일뉴스 2002/09/08

≪경평축구대회≫의 역사는?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평양 5.1경기장)

2002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상암동 경기장)

남북간 축구대결은 일제시대 온 민족의 관심사였던≪경평축구대회≫가 효시다. 1920년대부터 국내 각 지역에는 도시별 축구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중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이 경성(현 서울)과 평양이었다.

경평축구는 1929년 10월8일 조선일보사 주최로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경성팀과 평양팀이 친선경기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3차례 열린 첫 대회는 2승1무로 평양의 승리. 경평축구는 1933년 조선축구협회(대한축구협회 전신)와 경성, 평양축구단이 창단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경평전은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열렸으나. 35년 승부과열과 판정시비로 일시 중단됐다. 경평전은 해방 직후인 46년 3월 서울운동장(현 동대문운동장)에서 한 차례 재개됐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됐다. 남북 분단으로 막을 내린 경평전의 총 전적은 평양이 9승7무5패로 우위를 기록했다.

경평축구대회는 지난 1998년 11월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서울월드컵경기장 기공식 때 평양시에 경평축구 부활을 제의하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상호간의 교류가 단절됐던 남북축구는 76년 방콕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준결승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대결(북한이 1대0 승리)을 펼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해외에서만 격돌했던 남북축구가 다시 한반도에서 만난 것은 1990년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면서부터. 44년만에 남북이 평양과 서울에서 격돌한 이 대회서 박종환 감독이 이끈 한국팀은 10월11일 평양 5.1경기장에서 벌어진 1차전서 1대2로 역전패했으나 10월23일 잠실 2차전에선 황선홍의 헤딩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다.

1991년 5월에는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단일팀(≫코리아≫) 구성을 위한 1, 2차 선발전을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가져 6월 본선에서 8강진입의 좋은 성적을 일궈냈다. 이후 공백기간이 이어진 남북축구 교류는 1999년 9월 평양에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열리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후 단일팀 구성, 분산 개최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남북축구 교류는 지난 5월 박근혜 의원의 방북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공희정 기자
오마이뉴스 2002/09/10

살아 생전에 ≪경평축구≫ 다시 보다니

통일의 염원을 담은 남북 통일축구경기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990년 10월 이후 12년만에 서울서 재개된다. 일제시대 경평(京平)축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경기는 그간 남북간의≪대리전≫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지난 93년 10월 카타르에서 벌어진 미국월드컵 예선 이후 처음으로 펼쳐지는 이번≪남북 축구대결≫은 과거≪경평 축구대회≫와 같이≪화합≫과≪축제≫의 성격을 가진다.

남북화해 무드 조성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될 남북통일 축구경기는 실질적으로 평양시민과 서울시민의≪한풀이의 장≫이었던≪경평 축구대회≫가 46년 3월 막을 내린 후 반세기만에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이 7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2002남북통일축구경기≫를 학수고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이 있다. 34년, 35년, 48년 경평축구대회에서 선수로 뛰었던 원로 축구인 이유형(91)옹. 이 옹은 경평축구 대표는 물론 48년 런던올림픽 때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하기도 한 한국 축구계의 산증인이다.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이 옹은 아직도 축구와 함께 산다. 지금도 그를 만나려면 언제든지 축구경기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9월 6일 낮 12시 30분 할렐루야팀과 국민은행팀간의 실업연맹전이 펼쳐지던 효창운동장에서 이 옹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살아 생전에 다시 남북축구 대결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월드컵을 통해 한국축구는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의 격한 감동이 재현되길 기대합니다.≫

과거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모두 고인이 된 지금 이 옹은 다시 희망을 불태우고 있다. 살아생전 다시는 경평축구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 옹은 90년 남북통일축구로 경성축구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고 한다. 그러나 90년 당시 남북통일축구는 과거 자신이 선수생활을 할 때 느꼈던 감정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생동감이 없어 아쉬웠다고 이 옹은 지적했다. 과거 선수들은 활활 타오르는≪불화산≫ 같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격한 감동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 후배 축구선수들의 모습에서는 과거의≪패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월드컵을 계기로 살아난 한국축구가 이번 대회를 통해 북한축구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이 옹은 기대하고 있다.

≪경평축구와 특별한 인연≫

이유형 옹은≪경평축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황해도 신천 출신인 그는 34년에는 평양축구단 대표로 경평전을 뛰었고, 24살의 나이로 연희전문에 입학한 35년에는 경평축구단 대표로 출전했으니 말이다. 1년 사이 평양팀에서 경성팀 대표로 옮기게 된 것은 당시에는 거주지에 따라 소속팀을 나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서울운동장(현 동대문운동장)은 운동장에 잔디는 물론이고 스탠드도 없었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경기를 보기도 했다고 회고한다.

그의 경평축구대회 성적은 1승 2무. 그가 34년 평양팀 대표로 첫 출전했을 때는 1대 0으로 이겼고, 35년 서울팀 대표로 출전해서는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또 해방 이듬해 열린 46년 대회에서는 서울대표팀으로 출전,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축구경기를 통해 남북이 하나가 됐어요. 일제 식민지 시절 축구는 조선 사람 몇명만 모여도 붙잡혀가던 때에 너나 할 것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지요. 상대팀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 경기를 했지만 선수들의 마음속에 적은 오직 일제였어요.≫

일제 당시 경평축구대회는 식민지 시대에 한민족의 울분을 토로하는 자리였고, 또 한풀이 장소였다. 상대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경기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언젠가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수들은≪맞수≫ 의식으로 뭉쳐 사력을 다했고, 관중들은 뜨거운 응원 열기에 고조돼≪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경찰에게 끌려가기도 했다고 한다. 양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적으로 만나지만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서울운동장 주변의 선술집에 들어가 한 잔의 막걸리를 기울이며 식민지의 설움을 털어 냈다고.

≪유니폼 색도 가지가지... 서울은 빨강색, 평양은 파랑색≫

≪\f1 경평축구대회에 나서는 선수들은

각 도시를 대표하는 색깔에 맞춰 입고 경기에 나섰어요. 평양팀은 청색 유니폼에≪평≫자가 쓰여있는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 경성팀은 빨강색 유니폼에≪V≫자 표시가 되어있는 유니폼을 입고 뛰었지요.≫

≪빨갱이≫와 북한을 상징하는 색깔로 오랜 세월 남한 사람들을 괴롭혔던≪빨강색≫이 경성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은≪빨강색≫이 가지는 그 원래의 의미를 다시 복원했다고 말한다.

내일(7일) 열릴 남북 통일축구대회에 한국대표팀은 빨강색을, 북한대표팀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12년만에 남북이 하나돼 뛰는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감동을 맞게 될까?

공희정 기자
오마이뉴스 2002/09/10

남북축구 관련 일지

1946.3.25＝경평 축구대회(서울)
1966.3.11＝북한, 66월드컵전 남북축구 교환경기 제의
1973.3.6＝북한협회, 남북축구단일팀 구성 제의
1976.5.6＝최초 남북축구대결, 방콕아시아청소년선수권 준결승(북한 1－0 승)
1976.5.6＝김은하 대한축구협회장, 북한팀 서울초청제안
78.12.20＝남북 국가대표팀간 첫 대결 방콕아시안게임 결승 0－0 무(공동우승)
90.9.28＝남북체육장관, 남북축구 교환경기 합의(북경)
90.10.11＝제1차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평양), 남북여자대표팀 합동훈련(평양) 90.10.23＝제2차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서울)
91.2.12＝남북체육회담, 세계청소년선수권 남북단일팀 구성 파견합의(지바)
91.5.8＝남북 청소년축구단일팀 1차 선발전(서울)
91.5.12＝남북 청소년축구단일팀 2차선발전(평양)
91.6.14＝포르투갈 세계청소년선수권 남북단일팀≪코리아≫출전, 8강진입
96.1.15＝북한, FIFA에 2002월드컵 남북공동개최 가능성 타진 공문 송부
97.10.30＝AFC, 북한돕기 자선경기 개최추진 결정
97.11.24＝아벨란제 FIFA회장, 2002월드컵 남북단일팀 출전 제안
97.12.3＝아벨란제 FIFA회장, 북한에 2002월드컵개최 동참 촉구하는 서한 송부
98.3.9＝FIFA, 98프랑스월드컵 개막식에 남북한 최고 지도자 초청
98.10＝북한 장웅 IOC위원, 블라터 FIFA회장 초청
98.11.6＝고건 서울시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기공식때 평양시에 경평축구 부활 공식제의
98.11.30＝블라터 FIFA회장, 2002월드컵 남북분산개최 가능성 공식 인정, 99년 가을 방북 시사
99.1～3＝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방북 두차례 연기
99.6.2＝전 북한축구대표팀감독 윤명찬씨 귀순 확인
99.6.14＝정몽준 협회장, 7월 방북서 단일팀 제안할 계획 표명
99.9.12～13＝남북 노동자축구대회 개최(평양)
99.11.15＝정몽준 축구협회장 방북
99.11.18＝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북측에 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개최및 단일팀제안
2000.2＝블래터 FIFA회장, 방북 계획 북한사정으로 무기연기
2000.4＝정몽준 축구협회장 아시안컵 남북단일팀 출전 제안
2000.5.16＝AFC 집행위, 아시안컵 남북단일팀 출전 추인
2000.6.13~15＝남북정상회담개최(평양)
2000.10.12~10.29 레바논 제12회 아시안컵 단일팀출전 무산
2002.1.29~5일간 평양방문 하는 강동구청장통해 제의
[서울시는 2002.1.27일 고 건(高建) 시장의 친서를 평양시 강동군과의 자매결연을 위해 1.29일부터 5일간 평양을 방문하는 김충환(金忠環) 강동구청장을 통해 전달
서울. 평양 남녀축구대회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할 것을 평양시측에 제의.
2002.9.7 남북통일축구 (상암월드컵경기장)

민중의 소리 2002/09/05

축구

북과 남사이의 축구경기가 래일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90년 북과 남의 축구선수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축구경기를 벌린 이래 12년만의 일이다.

대결이 극심했던 12년전과는 달리 이번에 진행되는 축구경기는 6.15공동선언이 열어 놓은 화해단합에로의 흐름속에서 가져 지게 된다. 전해 진바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단일기를 들고 ≪통일조국≫의 함성으로 응원한다니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살벌했던 90년 그때와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이다. 이번 축구경기가 화해단합을 더욱 촉진하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올해 있었던 월드컵축구경기에서 남조선팀은 세계4강에 올랐다. 북측은 지난 66년도 월드컵에서 8강에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제시기부터 민족의 기개와 항거정신을 보여 준 민족의 축구는 나라가 분렬된 조건속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어 오늘은 세계적수준에 오른것이다. 우리 민족의 축구발전의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확실한것은 축구가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체육경기라는 사실이 근저에 깔려 있다.

축구경기이니만큼 당연히 승부를 추구하고 겨루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경기를 통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의지를 과시하는것이다. 승부겨룸이 그 자체에 끝나면 이번 축구경기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그래서 남측에서는 단일기와 ≪통일조국≫의 함성으로 북측 선수들을 맞는것이라 생각된다.

북과 남이 힘 합쳐 축구경기에서 세계정상에 오르는것은 이루어 질수 없는 꿈이 아니다. 이번 축구경기가 단합된 민족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계기로 될것을 바란다.

조선신보 02/09/06